

최다 합격생과 함께하는 이재현국어

2021년도 국가직 9급 국어 (나) 책형

1. 정답: ②

1) 꼭짓점 3) 딱따구리 4) 화병(火病)

2. 정답: ③

싸다: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하다: 포장지에 싸다=책을 싼 보통이
<해설>

- 1) 안채를 겹겹이 싸다: 주위를 가리거나 막다.
- 2) 붓짐을 싸고: 옮기기 편하게 묶다
- 4) 책가방을 미리 싸 두어라: 옮기기 좋게 상자나 가방에 넣다
2번과 4번은 같은 의미다.

3. 정답: ①

책이 읽히다: 피동으로 맞다.

<해설>

- 2) 의미 중복: 속독으로 읽는 것 → 속독하는 것은
- 3) 뒷절의 목적어가 빠졌다. → 직접 방법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.
- 4) 중복된 '시화전'을 1개로 합하자. → 그는 시화전의 홍보와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었다.

4. 정답: ②

인공조명 누출 원인은 없다.

5. 정답 ④

푸다: 푸+어=퍼(우불규칙, 어간 변화)

목적지에 이름: 이르+러=이르러(러불규칙, 어미변화)

<해설>

- 1) 빠름: 빠르다-르불규칙, 어간 변화/ 노람: 노랑다=ㅎ불규칙, 어간과 어미 변화
- 2) 치름: 치르다-으탈락규칙/ 함: 하다-여불규칙, 어미변화
- 3) 불음: 불다-ㄷ불규칙, 어간 변화/ 바람: 바라다-바라,바랐다: 규칙용언

6. 정답: ④

무슴다=무엇하느라

7. 정답: ②

야박(野薄): 들판 야, 얇을 박

<해설>

- 1) 현실(現實: 나타날 현, 열매 실) 3) 근성(根性: 뿌리 근, 성질 성): 뿌리 깊은 성질
- 4) 채용(採用): 캐다 채, 쓰다 용: 인재 채용

8. 정답: ②

최다 합격생과 함께하는 이재현국어

사회자는 순서 진행만 하고 있지, 이견 조정+의사 결정 유도는 없다.

9. 정답: ③

상대의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: 이견 관용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, 상대를 비난한 경우다.

10. 정답: ④

하버마스의 주장은 민주적 토론의 영역=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데 있다.

11. 정답: ③

대설 개념을 소개했으므로 다음에 이어질 부분은 '대설의 기준'이다. ㉠에 '주의보'란 단어가 있으므로 ㉡으로 가서 경보 예상 기준이 나와야 한다.

12. 정답: ③

머릿속에서 맴돌아도 언어로 발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와 사고의 영향 관계를 강조하는 이 글 주제와는 다르다. 언어와 사고의 단절을 말하고 있다. 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는 언어와 사고의 연결 예시를 모두 보여준다.

13. 정답: ③

글쓰기를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. 비유가 답이다.

14. 정답: ①

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고 1단락에서 밝혔다. '소리가 지닌 특성'이 아니라, 한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야 발음을 명료하게 할 수 있다. 이를 이탈리아, 스페인어와 영어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글이다.

15. 정답: ④

나이가 들어 고향에 돌아온 기쁨과 반가움을 시조로 표현했다. 자연과 대조는 '인간사는 변하지만 산천(자연)이야 가실 것인가'로 있다. 그러나 노년의 무력함은 전혀 아니다. 첫 줄에 고향의 바위 '농암'에 올라보니 늙은 내 눈이 오히려 밝아진다는 구절이 있다.

16. 정답: ①

소의 반추 행위를 보면서 의식의 흐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인과성 없이 열거한다.

17. 정답: ②

束手無策(속수무책): 손이 묶여 어쩔 수가 없다.

황거칠 씨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담당 경사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.

<해설>

1) 동병상련 3) 자가당착 4) 전전반측

최다 합격생과 함께하는 이재현국어

18. 정답: ④

설의법: 답을 알면서도 묻는 식으로 글을 써서 감정을 강조할 때 쓴다.

이 시에서는 1연과 4연에서 '가지곶는가'로 설의법을 썼다. 또 2연에서 주제가 명확히 드러난다. 힘든 일이 있어도 뿌리를 깊이 해서 흔들리지 말고 살자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.

19. 정답: ④

괄호 메우기는 그 부분 앞뒤만 보면 된다. ㉠ 뒤에 '국보 문화재'가 나오므로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는다가 답이다.

20. 정답: ①

나비: 호랑나비= 상하관계이다.

상위개념과 하위개념에서 '하위개념'의 정보가 더 많다. 1단락에 그 내용이 있다.